

하루 14시간 日軍노리개

버마戰線 정신대 실태 美軍보고서 첫 공개 중앙

1/17 1992. 2. 29

**日징발업자에 속아 끌
수입 60%는 관리인이**

평균연령 25세... 독립기념관서 곧 전시

日帝의 전쟁범죄인 南洋의 獨逸기병관은 3월11일부
정월에 끝났다. 참호한 고
를 겪었던 韓國人중군위
안부 관원사실을 재관적으로
기록한 전쟁당시 美軍심리
전술의 공식보고서가 최초
로 국내에 입수, 일반에
공개된다.

독립기념관은 3월11일부
터 특별전시실에서 「美軍심
리전술 중군위안부 심문보
고서」를 전시한다.
이 보고서는 44년 8월
버마전선의 미군이 체포한
일본군포로중 한복인 중군
위안부 20명을 조사한 내
취된 기록으로서 위안부 관
용이다.

문서는 美國에 보관돼오
던 것을 지난해 12월20일
외무부가 주미대사관을 통
해 입수, 독립기념관에 전
달했다.

이문서는 전쟁현장에서 채
취한 것으로 가장 재관적인
정도로 평가된다.
또 일본군이 총전전전 전
정중의 가장 비인륜적 법
죄인 중군위안부 관원자료를
모두 파기해버렸기 때문에



1944년 미얀마(푸버마)에서 심리전술소속 美軍이 韓國을 신
신문하고 있다. 이번 공개된 문서속에 포함된 사진이다.